



▲ 우리 학교 학생회관에서 진행되는 '천원의 아침밥'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관련기사 1면. (사진: 강수아 기자)

전주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실시

우리 대학이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재개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1,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학생이 결제하는 1,000원과 정부 지원 금액인 1,000원, 그 외의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 진행된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레시피' 공모전을 통하여 아침밥 메뉴를 구성했다. 이 공모전은 우리 쌀과 전북 로컬 푸드를 활용하여 대학생 맞춤 MZ형 음식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수상작 사이, 최고점을 받은 1~4위 메뉴를 보완하여 구내식당에 선보였다. 또한, 학생 편의와 취향을 고려하여 포장 가능성이 높도록 구성했다.

홍성덕 대외부총장은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 실행을 앞두고 "전북형 천원의 아침밥 메뉴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도내 대학과도 공유할 계획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달 19일부터 기부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동문과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매달 1만 원을 정기 기부받을 예정이다.

한편, '천원의 아침밥'은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스타센터와 학생회관 식당에서 진행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한다. 행사 종료 기간은 이용 수요와 예산을 살핀 후 조정될 수 있다. 학생회관에 있는 '최고당 돈가스'의 대표메뉴는 임실 치즈를 활용한 카레이다. '밥이 든든'에서는 김제의 신동진 쌀을 이용한 메뉴를 만나 볼 수 있다. 스타센터 '바게트버거'는 전북도 지역의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를 선보였고, '스타밥스'에서는 고창의 복분자와 부안의 오디 등을 활용한 덮밥을 판매 중이다.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한 김가현(경영학과21) 학우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고,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 적당한 시간대에 저렴한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돌아온 미소'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예배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본교 대학교회관에서 개강예배를 진행했다. 3년 만에 진행했던 작년 개강예배에서는 참석자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반면, 1년이 지난 이번 개강예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예배를 진행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됐던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예배당에 인도자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을 비롯한 많은 구성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대표 기도로 참석한 김창민 교수(교수선교회 회장)는 '우리 대학이 이뤄온 모든 성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며 '학생들이 진로에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달아 전주대학교 학생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기도했다.

설교 말씀을 전한 안효관 목사(남성교회 담임목사)는 '교회학교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우리 모두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넘치는 전주대학교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은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 많은 입시생이 전주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한다고 전하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일본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지난 13일, 우리 대학 온누리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의 '명예 행정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제93대 총리를 역임한 인물로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인물 100인에 포함될 정도로 세계 정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박진배 총장은 "전 총리님의 지위로, 일본 내에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이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라며 존경을 표했고, "하토야마 전 총리님께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용서 전주대 대학원장은 "하토야마 전 총리께서 현재에도 동아시아 공동체 연구소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라며, "하토야마 전 총리의 공적을 높게 기리기 위해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방금 박진배 총장님께서 명예 행정학 박사를 저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일 관계 그리고 세계가 평화를 향해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소망을 밝혔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학위를 받은 뒤 한·일 협력과 미·중 대립 해소, 국제적 평화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달라지는 전주대 학사제도

이번 2학기부터 우리 대학 학사제도에 듀얼 디그리 시행, 트랙형 마이크로전공 인증서 발급, 자기 설계 연계 전공 모집, 핵심 교양에 학문융합 영역 신설 총 4가지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변화는 듀얼 디그리를 시행한다. 듀얼 디그리는 복수학위라는 뜻으로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증명방식이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졸업증명서에서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을 수직적 구조로 복수전공이 하위에 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수평적인 구조로 순서를 변경하거나 주전공과 복수전공 중 하나만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는 졸업증명서에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전공'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트랙형 마이크로전공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트랙형 마이크로전공은 △12학점 이수 △주전공 교과목 3학점 초과 △다 전공에 미 해당 △인증서만 발급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인 마이크로전공은 다전공제에 해당하고, 각종 증명서에 표기가 가능한 점에서 트랙형 마이크로전공과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트랙형 마이크로전공도 별도의 인증서가 발급된다.

세 번째 변화는 자기 설계 연계 전공을 새롭게 모집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 자기 설계 연계전공은 주전공과 중복인정 학점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 전공 이수학점이 21학점으로 총 36학점 이상 수료해야 한다. 자기 설계 연계 전공을 이수할 경우, 학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전공 심화 과정은 면제된다. 자기 설계

연계 전공 신청 기간은 매 학기 12~13주 차다.

네 번째 변화는 핵심 교양에 학문융합 영역이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과 신사회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핵심 교양에 학문 융합이라는 영역을 신설했다. 신규 학문융합 핵심 교양은 기존의 핵심 교양과는 달리 전 단과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학문융합 영역 교과목은 1학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금융 생활과 소비자 △신용평가와 채권의 관리 △실감미디어의 이해가 개설된다. 2학기에는 △기업경영과 노사관계 △실감미디어의 이해 △효과적인 사회문제 정의와 아이디어가 개설된다.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경영대학, 온라인 공간 메타버스 오픈

우리 경영대학(학장 이경재)은 지난 8월 29일(화)에 자유관 일대와 자유관 건물 내부를 배경으로 구축된 AI가 탑재된 메타버스 공간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자유관 메타버스는 강의실, 야외교실, 세미나실 등 화상회의 기반 게더타운(Gather Town)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자유관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건물 내·외부를 구경할 수 있다. 또한, 자유관의 명소인 빗꽃길을 사진과 영상을 메타버스에 탑재하여 자유관의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게 구현했다.

우리 대학 메타버스의 공식 명칭은 'STARverse'로 작년 10월에 전국대학 최초 학사시스템 연동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면서 현재까지 메타버스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시점이었던 작년에 메타버스 공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 강했지만, 현재는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 강의, 축제, 이벤트 등과 같은 주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교내외 구성

원의 관심과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금)부터 15일(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경영대학 메타버스 공간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경영대학 온라인 입시상담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수험생에게는 메타버스 공간에 있는 유료 부스에서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했다.

경영대학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교내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인도 우리 학교의 메타버스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대학 위상이 더욱 비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대학은 '수시모집 기간동안 메타버스에서 수험생 입시상담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단과대학 축제 등 재학생을 위한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대학 메타버스 서비스는 원격교육지원센터 (<https://www.jj.ac.kr/cde/>)를 통하거나 경영대학 홈페이지 (<http://biz.jj.ac.kr>)에 '경영대학 메타버스'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JJ-MOOC로 전주대학교만의 매력을 전 국민에게

전주대학교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케이무크) 플랫폼에 공개강좌를 개설했다. 대상 강좌로는 멀티링구얼 습득과 실천(박강훈 교수), K-FOOD 코디네이션(김수인 교수), 한국 속의 음식 문화 여행(이대희 교수), 기독교윤리와 적성(조재천 교수), 슬기로운 디지털미디어 생활(최선희 교수)로 총 5개가 있다.

MOOC는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할 수 있으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한국형 무크(K-MOOC)는 2015년 10월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우수 대학의 총 27개 강좌로 시작된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전주대학교에서는 K-MOOC 이외에도 JJ-MOOC(제이제이 무크)로 전주대학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좌를 전 국민 대

상으로 온라인 공개했다.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JJ-MOOC를 통해 우수한 강의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여 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강의로는 다시 읽어보는 한국의 근대 문학사(이용욱 교수), 1인 미디어의 이해와 간단한 동영상 만들기(김병오 교수),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박경수 교수), 음악으로 보는 서양 문화(박성희 교수) 등이 있다. 총 19개로 구성된 JJ-MOOC는 이처럼 폭넓은 주제를 다루며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모든 강좌의 모집 기간과 학습 기간은 9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수강 신청은 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MOOC 탭에서 모집 강좌 중 고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063-220-2998(전주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박경륜 행정원)로 하면 된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전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국 최고 등급 'S등급' 달성

우리 대학이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교육혁신 전략 'S', 자체 성과관리 'A')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 지원 대상 117개교를 대상으로 1차년도(2022년) 평가를 시행했으며, 기존 평가 지표는 대폭 간소화하여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핵심 교육성과(유지충원율),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특히, 전주대는 '지역산업 및 사회수요

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 및 지역특화 인재 양성', '실질적 전공선택권 보장을 통한 미래 창의인재 양성', 'AI Coaching 기반 학생성공 생태계 구축'을 핵심 혁신 목표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교육혁신 전략 영역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대학 박진배 총장은 "학생성공과 지역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을 목표로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을 혁신하고 있다"라며, "학생-대학-지역이 함께 성공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23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서 호남제주권 유일하게 '고도화형', '광역형'에 모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기사 제공 | 대외협력홍보실

추석에 대해 알아보자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전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중국 총동문회 개최

대학원 교육학과는 지난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중국 하북성에서 '전주대 교육학과 대학원 중국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동문회는 중국 전역에 거주하는 30여명의 대학원 박사 졸업 중국인으로서 각 대학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며 전주대 졸업생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다. 특히 장건군 동문회장은 현재 당산공업직업기술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졸업동문

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문들 간의 친교 및 나눔의 시간과 향후 한국과 중국 간의 학술·문화 교류 사업을 계획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주대학교를 홍보하기 위하여 중국 SNS 등을 마련하여 동문들이 대학 홍보에 가교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총동문회에서 유평수(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한·중 양국이 서로 협

력하여 발전하는 데 우리 동문들이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며, 유학생 유치 및 대학 홍보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제공 | 국제교류원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의무 반영

지난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같은 날 교육부와 대교협이 배포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전

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정고시생인 경우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교협은 2026년도 대입에서 모집 시기별 전형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도록 추가모집 시작일에 발표되던 주요 사항을 정시 미등록 총원 마감일인 2026년 2월 13일 오후 6시부터 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한편, 2026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돼 있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2023년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도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 대상자 4차 모집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업은 치유농업 관심 고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사로서의 전문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모집 대상자로,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며, 센터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또,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및 희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치유농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가 지원되며, 실버 인지 요리지도사 1급(21시간), 원예 심리 상담사 2급 과정(30시간) 교육 시간의 80% 출석 및 평가로 진행된다.

실버 인지 요리지도사 1급 자격증반은 세계 아동 요리협회 김제지사에서 지난 11일, 12일, 14일 3일간 진행되었다. 교육비는 300,000원으로, 재료비나 자격증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예 심리 상담사 2급 자격증반은 지

난 18일부터 오는 2일까지 5일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우리 대학에서 실시되며 교육비는 실버 인지 요리지도사 자격증반과 같다.

해당 사업을 통해 대국민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신 소득원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주시 이외에도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진안군 등 많은 시·군에서 진행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마경진 기자(alfpwnsgh12@jj.ac.kr)

신문을 읽어봐요

1
2
3
4
5
6
7

1. 얇은 고무 주머니 속에 공기나 수소 가스를 넣어 공중에 높이 올라가거나, 뜨게 만든 물건은 ○○이다.
2. 치유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가 지원되며, 실버 인지 ○○○○ 1급(21시간), 원예 심리 상담사 2급 과정(30시간) 교육 시간의 80% 출석 및 평가로 진행된다.
3. 지난 5월에 진행된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레시피' 공모전을 통하여 아침밥 메뉴를 꾸려 냈다. 우리 쌀과 ○○○○를 활용하여 대학생 맞춤 MZ형 음식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4. 대상 강좌로는 멀티링구얼 습득과 실천(박강훈 교수), K-FOOD 코디네이션(김수인 교수), 한국 속의 음식 문화 여행(이대희 교수), 기독교윤리와 적성(조재천 교수), ○○○○ 디지털미디어 생활(최선희 교수)로 총 5개가 있다.
5. 지난 30일 ○○○○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6. 작년 10월에 전국대학 최초 학사시스템 연동 메타버스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면서 현재까지 메타버스 공간을 끊임없이 확장해 ○○○○ 있다.
7. 듀얼 디그리는 ○○○○라는 뜻으로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증명방식이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 932호 정답: 2학기가보자고

[932호 정답자]
 - 호텔경영학과 최민서 - 행정학과 정기은
 - 한국어문학과 조민영

*** 알림 ***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 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10월 11일(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정답자 발표: 934호(10월 25일) -



오염수 방류 이후, 늘어난 밥상 고민과 대응 세태

지난 8월 24일을 기점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였다. 한 달 정도 지난 현시점의 수산물 소비 위축 현상과 그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류 소식을 접한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크게 상승하였다. 전주 대비 40%의 급증 폭을 보였다. 오염수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 수산물을 다량 구비 해 두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였다.

오염수 영향 본격화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건강염려가 반영된 소비 형태를 보였다. 물류 업계에서는 수산물 선물 세트에 '방류 이전 비축한 물량'이라는 안내문을 붙여 판매장에 내놓았다. 매출의 호조를 보인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대형 카드사는 수산물 카드 사용 집계 결과에 대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선제적 수요 등이 합쳐져 단기간 매출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산물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각종 젓갈 및 소금, 말린 멸치, 다시마는 조미료를 구성하는 대표 재료이다. 근자에 들어설수록 온라인상 중고 거래 매체에서 '천일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남 신안군수협직매장에서 공정한 2021년산 20kg 판매금의 2배 이상의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 20kg의 한 포대당 8만 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3만 원이었던 소금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 1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만 원이 넘는 물가 상승 폭을 자랑하였다. 또한, 신안군 일부 지역은 소금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보유 재고량이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해 생겨난 사태이다. 천일염을 비롯한 새우젓, 신안 돌김 등의 완판을 이루었다. 이번 사태는 소금 품귀 현상을 벌였다. 학부모들의 급식 민원도 만만치 않다.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하여 정부는 단체 급식에 더 많은 수산물 사용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수산물 안전 점검이라는 방책으로 민원 진화를 나섰지만,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경남 모든 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 검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검사 품목은 고등어, 바지락, 미역, 조개 등 학교 급식에 주로 쓰이는 15가지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인간 생활의 3요소 중 하나인 식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밥상 위 오염수 영향을 받지 않는 반찬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안전성 우려가 담긴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 정서와 대비되듯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순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실의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국산 수산물을 배식한 이력이 있다. 제공 수산물에 대해 "국민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멍게·우럭 등"이라고 발표했다. 수산물 식탁은 이달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9월 1일 물회가 제공되었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은 국산 수산물을 주메뉴로 제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포부를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덧붙여 대통령실의 이러한 행보를 "국민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기를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방류 시작 일주일 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기도 하였다. 참모들과 함께 수산시장에서 열린 오찬을 통해 음식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우고, 국물도 추가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오찬을 보고 "서울 노량진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의 수산물도 100%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표현하였다. 이어 "대통령이 먹는 음식의 안전성은

100%"라고 정의 내렸다. "경호처 검측 관이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드시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기 때문"을 확답의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이 간과 한 점은 오염수 방류 시기이다. 최단 6개월 이내 오염수 한국 도달 위험이 크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강의에서 "삼중수소나 세슘의 반감기는 각각 30년, 12년 정도인데 국내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세슘의 경우 제주는 1개월 이내, 동해엔 6개월 이내면 도착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였다. 독일 쾰른 헬름홀츠 해양 연구소 역시 2012년 논문을 통해 방류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중국 칭화대 해양 공학연구소는 2021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280일 이후 제주 등 한국 남해안에 오염수가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국립과학리뷰'지에 발표하였다.

국민과 정부 중 누구의 행동이 맞는 것일까? 9일부터 10일까지 이들 동안 진행된 강서 수산 대책제는 쓸쓸한 뒷맛을 남겼다. 수산시장 축제가 한창이었음에도 시장 내부 손님이 붐비는 일이 손에 꼽았다. 시민들은 수산시장에 방문하면서도 "좀 째째한데 그래도 해산물을 먹어야 하니까", "서해산 수산물은 안전한 건지 궁금하다"라며 수산물을 향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권위자는 일부이지만 국민은 다수이다. 수산물 소비 장려가 극에 그치는 행위인지 진실성 있는 모습인지에 대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의 6개월 뒤 구내식당 메뉴가 국민의 궁금증을 대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디자인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제2차 학사모니터링 회의 개최

2023학년도 제2차 학사모니터링 회의가 지난 10일 진리관 109호에서 개최됐다. 박진배 총장과 이상행 학생취업처장, 차진아 교무처장, 이덕수 총무처장, 서광수 학사지원실장, 이용노 학생지원실장, 이종화 시설지원실장까지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15명(5인당 1팀)이 모인 가운데 팀별로 조사한 학내 문제점을 발표하고 개선을 위한 회의가 이어졌다.

학사모니터링은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학사모니터링이란, 학생들이 직접 팀을 이루어 학내에서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학사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023년 5월에 재개되었다.

지난 5월 10일에 제1차 학사모니터링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1차 회의에서는 학내 휴식시설 개선 방안과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그리고 교내 시설 및 서비스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박진배 총장은 '이번 우리 학생들이 학사모니터 활동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학사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동안 배우고 경험한 능력은 밖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니 우리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다 같이 노력하여 더욱 빛나는 학교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그동안 또 발견된 문제점 언급 그리고 방안 제시 및 피드백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 내용은 교내 시설 문제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언급되면서 학생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시설적인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제2차 회의를 마치며 학사모니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행 학생취업처장은 '각자 바쁜 와중에도 학사모니터에 참석 해주신 박진배 총장님과 처장단, 실장님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 학사모니터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 덕분에 제1차 회의 때보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발전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고생 많았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며 '다음에 진행할 제3차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가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학사모니터링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제3차 학사모니터링 회의는 오는 11월 혹은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팀별 주제 관련 진행 상황과 추가 개선점 및 피드백 그리고 2024학년도 학사모니터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지난 9월 초, 기상청은 9월 사이 동풍이 불어오면서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이며,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23.7도)보다 1도 높았다. 이는 전국 단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4위에 해당한다. 또한 폭염일수가 13.9일(평년 10.7일)로, 많았다. 6월부터 지속되는 더위에 이례적인 9월 열대야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습기가 많은 남풍이 강하게 불은 탓에 최저 기온의 온도 또한 높게 관측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날씨에 냉방장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개중에서도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기계장치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싼 요금과 더불어 상승곡선인 물가로 에어컨 사용이 꺼려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실생활에서 애용되는 에어컨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며,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어컨의 작동 원리

1. 고대

고대 로마인들은 수로의 물을 벽으로 통과시켜 더운 날씨에 건물을 차갑게 유지하려 했다. 또, 동남아 사람들은 내부 공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젖은 잔디를 창문에 널었다. 현대식 에어컨은 이러한 기초 원리를 응용하여 1902년에 출현하였다.

2. 20세기

에어컨의 근본적인 과학 이론은 윌리스 캐리어가 개발하였다. 그가 만든 에어컨은 냉각과 습도 제거를 위해 분사 노즐을 사용했다. 부피가 크며 냉각제로 인체에 해로운 암모니아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염화메틸, 프로판 등의 기체가 쓰였는데 독성과 가연성 때문에 누출될 경우, 위험이 동반했다. 그러나 그의 발명품은 더위와 관련된 질병 사망률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3. 현재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에서는 찬바람이, 실외기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즉, 에어컨은 실내의 더운 열을 흡수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현대 에어컨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가 차가운 액체 상태로 배관을 따라 실내기를 순환하는데, 이때 실내기 내부 냉각핀에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면서 주위를 차갑게 만든다. 이후 냉각핀 안쪽에서 송풍기 팬이 가동되며 차가워진 공기를

내뿜는다. 이러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기화열이라고 하며, 에어컨의 원리는 기화열에 의한 냉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액체가 기화할 때 주위에서 기화열을 흡수하므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면 냉각핀 안쪽에서 송풍기 팬이 가동되며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 열은 원래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지만 이런 에어컨의 냉각 사이클을 통해서 반대 방향인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옮겨진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은 냉장고와 같은 원리이지만, 둘의 면적이 다르므로 에너지 소모 차이가 달라 비용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같은 냉방제품 중 선풍기는 전동기의 축에 장치한 날개를 회전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치솟는 전기세에도 효과적인 냉방으로 사랑받는 에어컨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어컨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첫째는 창문에 에어캡 부착하기다. 겨울철 단열을 위한 소품으로 알려진 에어캡은 여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에어캡이 실내의 단열효과를 제공해 에어컨의 냉방 효과를 감소시킬 거라는 우려와 다르게 에어캡은 여름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에어캡을 붙이면 햇빛 차단 효과와 함께 에어컨 가동 시 냉기가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블라인드나 커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둘째는 무풍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황준 프로는 “무풍 운전은 ‘분무기 원리’와 비슷하며, 이는 ‘분무기의 노즐처럼 유풍과 무풍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냉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람 문이 열리면서 전면으로 바람이 토출되고, 찬바람 없이 쾌적하게 실내를 냉방하고 싶은 경우 바람 문이 닫히면서 전면 패널에 있는 무풍 홀로 냉기가 토출될 수 있도록 에어컨 내부에서 바람의 방향을 우회시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셋째는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다. 먼지가 많이 쌓인 필터는 에어컨의 성능을 저하해 전력 사용량을 늘린다. 필터 청소와 교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 에어컨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는 자신이 사용하는 에어컨의 종류를 아는 것이다.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확인하여 각자 맞는 사용을 하면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010년 이전 모델이라면 정속형이고, 이후에 샀거나 제품에 ‘인

버터’라고 적혀 있다면 인버터형이다. 스탠드형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1~4등급이라면 인버터이고, 5등급이면 정속형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에어컨 옆에 붙어 있는 표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버터형 에어컨에는 ‘정격 능력’이라고 적혀 있는 곳 옆에 ‘정격’, ‘중간’, ‘최소’ 세 개로 분리되어 있다. 정속형 에어컨은 출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설계된 관계로 정격 능력 표시 옆에 와트만 적혀 있어 이러한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버터형과 정속형은 실외기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정속형은 실외기를 최대로 돌렸다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끄고, 다시 더워지면 또 켜서 돌리는 것이 좋다. 반면 인버터형은 꺼짐과 켜짐이 아니라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절전 상태에 들어가 속도를 제어하며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20도 정도의 적정 온도로 장시간 켜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인버터형도 장시간 외출 시에는 꺼두는 것이 좋다. 개발자들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에어컨을 켜다가 다시 구동시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출 시간대별로 알아봤다. 결과는 대체로 90분 이상 외출을 하게 되면 에어컨을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 켜두는 게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외에도 에어컨 타이머를 활용하고, 실내 내부의 냉기 순환을 위해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며, 실외기의 열을 차단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면 에어컨을 틀어 발생하는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듯 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지만,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교환할 수 없는 지구의 환경이 악화할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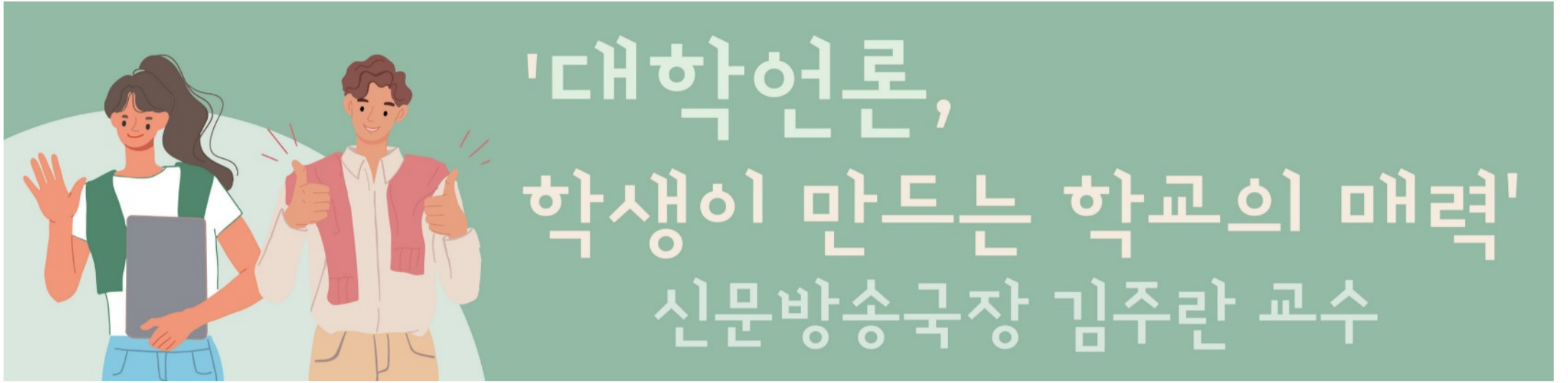
▲ 출처: [KBS 뉴스] “서울·인천 등 이례적 ‘9월 열대야’...당분간 무더위 이어져.”, [세계일보] “2023년 여름, 평년보다 1도 덥고 비도 291.2mm 더 내리”, [국진뉴스] “잠깐 외출시, 에어컨 끄지 마라”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방법”, [여성조선] “췌다 췌다 하면 전기료 폭탄?... 전기요금 아끼면서 에어컨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원리사전(이화정),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상을 바꾼 발명품 1001(잭 웰로너)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2023학년도 2학기 전주대신문 발간 일정

호수(No)	발간일
934호	10월 25일(수) 오전 9시
935호	11월 22일(수) 오전 9시
936호	12월 20일(수) 오전 9시





우리 대학은 학생자치기구 대학언론기관이 존재한다. 학생취업처 산하에 있는 신문방송국(Jeonju University Newspaper & Broadcasting Station)이다. 신문방송국은 신문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대학신문사와 영상 관련 활동을 총괄하는 교육방송국으로 나뉜다. 우리 신문방송국의 역사는 올해 대학신문사가 창간된 지 58주년, 교육방송국이 개국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학언론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신문방송국장이란 직책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그러나 대학언론과 신문방송국이란 단어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과 앞으로 대학언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에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3학년도 2학기에 새로 부임하신 신문방송국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주로 앞으로 신문방송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 대학언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Q. 신문방송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신문방송국장을 맡은 김주란 교수(경영학과장)입니다.

Q. 현재 경영학과장으로서도 바쁘신 와중에도 신문방송국장까지 도맡을 결심까지 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교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학생들이 잘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학생취업처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장을 4년간 맡아,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신문방송국도 학생들의 신문방송국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대학언론'은 다른 말로 '대학 내 또 다른 CCTV'라고도 불리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언론'은 무엇인가요?

A. 대학언론은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 이미지, 대학생들과 미래의 입학할 예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위상, 학생들만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우리 학교만의 매력을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를 대학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신문방송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목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 학생들과 미래의 학생들도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졸업 후 커리어를 위해 성장해 나가는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언론과 신문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을 위한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신문과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문사 기자단과 교육방송국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신문과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제 한 대학언론의 기관장으로서 우리 신문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A. 기존의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들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에, 전주대신문도 우리 학생들과 미래의 전주대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자단을 돕고 싶습니다. 우선 온라인과 모바일 UI/UX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비주일이 중요시되고 있기에 한눈에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을 확장하는 것을 저의 전공 능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방송국도 교내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국원들의 교양, 예능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Q. 국장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발전된 신문방송국은 우리 대학과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 우리 학생들과 미래에 입학할 학생을 타겟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언론과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문방송국도 언론을 강화하고 확장하여 미디어의 변화에 상응하는 한편, 재학생들, 예비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Q. 현재 언론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과 앞으로 활동하게 될 미래 인재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교생활도 바쁘는데, 기획하고, 취재하고, 편집하고, 방송하는 학생 기자단과 방송국원들이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신문방송국의 장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학생들의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대 신문의 기자들 한명 한명 모두 학생기자 활동을 기반으로 졸업 후 KBS, MBC와 같은 메이저 언론 기자, 노컷뉴스 기자, 스포츠 뉴스 기자 등등 신문과 방송의 언론인으로서 커리어를 쌓아 가길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까지 역량을 확장하고 있는 방송국원 학생들 모두 방송과 MCN까지 진출하여 방송 작가, PD, 카메라 감독, 엔지니어, 마케팅 방송 분야까지 여러 방향으로 우리 신문방송국 일원들이 교내에서 보여줬던 능력을 밖에서도 발휘하며 어디를 가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 함께하고 도울 수 있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더욱 발전된 대학언론과 우리 신문방송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2023학년도 2학기 신문방송국 학생 기자단>



▲ 전주대학교 신문사 기자들

▲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국원들

‘준비된 미래인재를 키운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 조동영 교수 인터뷰



우리 대학은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정원 내에서 65개 학과, 4개 학부, 8개 전공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2학기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신설됐다. 소속 학과로는 데이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총 4개의 학과가 있다. 신설된 단과대학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조동영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Q.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전북 지역사회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 목표는 전국적으로 확장될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지역 대학으로서의 성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으로 전북 지역에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주요 목표입니다.

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성공을 통해 최근에 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것’보다 ‘세계가 우리 대학을 찾도록 하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산업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이를 어떻게 대학에서 반영하고 있나요?

A.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컴퓨터가 195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지만 일반화되진 않았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의 일반화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프라가 확대되고, 하드웨어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드웨어의 발전보다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초등학교부터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의 컴퓨터 교육은 주로 도구 중심이었으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교양

교육을 개편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코딩, 파이썬, 또는 스크래치와 같은 기초 코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Q.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전공과 연구 분야를 제공하고 계신가요?

A. 저희 단과대학은 기존에 존재하던 IT 관련 핵심학과, 저희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 여기에 내년부터 데이터공학과를 신설해서 4개 전공으로 출범합니다. 이 네 가지 전공 분야는 컴퓨터공학, 스마트 미디어,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공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한 전공들은 세부 트랙이나 융합 전공으로 다양한 다른 분야와 결합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메인 전공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융합 전공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융합 전공은 학생들이 최신 기술과 전문 분야를 지속해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별 전공뿐만 아니라 메인 전공과 연계된 전공들을 통해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선택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소프트웨어 시대다 또는 정보화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미래 사회의 키워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전공들이 바로 우리 단과대학에 있는 전공들입니다. 다른 여러 단과대학에서도 메인 전공 외의 다양한 융합 전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공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대학에서는 이와 같이 전공의 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지만, 여전히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과대학에서는 전공 간의 경계를 낮추고 학생들이 여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옵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베이스로 하면서도 다른 분야를 탐구하고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과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학장님의 지도철학이나 교육 철학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전주대학교에 와서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을 접해왔고,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저와 학생이 수업으로 한 학기에 5주 내지 16주를 만납니다. 이게 많아 보이지만 막상 수업을 해보면 많지 않아요. 제 욕심 같아서는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가장 핵심적이고 뼈대가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자’입니다.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에 응용해 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즐기자’입니다. 모든 학문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공학계열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즐겨야 합니다. 쉬운 문제는 극복했을 때 성취감이 크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극복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성취감과 보상이 따라올 것이예요.

Q.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으로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제가 학장직을 맡은 것은 지난 7월이었습니니다. 당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출범 계획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 학기부터 출범하고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단과대학의 행정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 역할로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단과대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미 세 개 학과를 통합했지만, 이제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중복 부분을 최소화하고, 교수진과 시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입시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역사회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비전과 역할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공부하려면 외부 자금을 유치해서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열정과 패기를 배울 것입니다.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 전문가, 스마트 미디어 전문가, 데이터 공학자 등 각자 꿈을 키우면서 우리 단과대학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또 팀워크의 힘을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인생을 배우고, 인성을 배우고, 미래 사회의 동지들과 교류하고,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준비를 저희 단과대학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재학 중에 저희 단과대학에서의 많은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평생 소중한 경험이 되고,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경에 ‘크고 작아도 남을 섬겨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섬기고 지역 대학을 섬기며,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성공과 지역의 성공이 결국, 우리 전주대학교, 우리 융합대학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과대학은 항상 우리 학생들의 미래와 같이할 겁니다. 같이 멋진 우리 소용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2024학년도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과 체제※

컴퓨터공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인공지능학과
데이터공학과(신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난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2022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연기되어 올해에 치러지게 되었다. 도쿄 올림픽이 2021년에 열리고도 '2020 도쿄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아시안게임이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시아 각국 상호 간의 친선과 경기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 올림픽 경기에 대비할 목적으로 창설된 스포츠 대회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중국이 세 번째로 개최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아시안게임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대회부터 4년 주기로 짝수 해에 열리고 있다. 하계 아시안게임이 연기돼 치러지는 것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처음이다. 2024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10개월 앞두고 열리는 올림픽 전조전 성격이라는 점에서 이번 하계 아시안게임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개막식 및 폐막식이 개최되는 항저우 스포츠파크 경기장을 시작으로 항저우시 각 지역에 분포된 다수의 경기장 및 체육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이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지만 항저우시 외, 저장성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분산 개최된다. 대표적으로 진화시에 축구 경기장 2개와 세팍타크로 경기장이 있고, 사오싱시 웨칭구에 야구장 겸 여자 소프트볼 경기장, 사오싱시 커차우 지구에 배구장, 후저우시에 농구 경기장, 윈저우시에 드래곤보트 경기장, 닝보시에 윈드서핑 경기장이 있다.

경기는 40개 종목(61개 세부 종목)과 483개의 금메달을 걸고 승부를 펼치게 된다. 참가 규모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소속 45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기에는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 참가 신청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초청국 자격으로 개인종목 한해서 참가하게 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는 '이중 올림픽 도시' 베이징과 '지상의 천국' 항저우 간의 이중 도시 대화와 네트워크 전반의 연결이라는 혁신적인 형태로 온라인에 출시되었다. 마스코트는 심오한 유산이 담겨 있으며 시

대의 활력이 넘치는 로봇 집단이다. 그룹 이름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유명한 대사에서 따온 '강남이'이다.

'강남이'는 시공을 넘나들며 꿈을 전하고 스포츠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또, 문화의 찬란함을 부각시키고 항저우시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3명의 마스코트는 각각 '첸첸', '콩콩', '리안리안'으로 명명됐으며, 이들은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고 평화와 우정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40개 종목(61개 세부 종목)이 치러지는데, 종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목은 경쟁적 스포츠로, 양궁, 승마, 사이클링, 역도, 사격 등 24개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종목은 볼 스포츠로,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하키 등 18개가 있으며, 세 번째 종목 대적 스포츠에는 태권도, 복싱, 레슬링, 펜싱 등 9개의 세부 종목이 있다. 네 번째 종목은 수상 스포츠로, 요트, 조정, 수영 등 10개가 있다.

이번 대회 종목 중 주목할 만한 종목은 바로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다. e스포츠 세부 종목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왕자영요 ▲EA 스포츠 피파온라인 4 ▲몽삼국 ▲도타2 ▲배틀그라운드(PUBG)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V 등 7개의 게임이 있다.

7개의 게임 중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특이점이 있다. 배틀그라운드의 꽃으로 불리는 '대인 사격'이 금지된 것이다. 해당 종목은 아시안게임 전용 버전이 개발되어 진행된다. 배틀그라운드 제작·배급사인 크래프톤은 4명인 팀으로 협력해 운전 및 사격 실력을 겨루는 형태로 개발했다고 전했다. 즉 대인 사격 대신 목표물을 설정해 맞히는 형태의 경쟁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

았다. 조직위가 국가 간 친선을 도모하는 아시안게임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대인 사격'이 국가 간의 화합을 해친다고 보는 것이다.

e스포츠 종목으로 채택하기로 예고됐던 하스스톤은 정식 종목에서 빠졌다. 한국은 대표 선수와 감독까지 정해둔 상태였지만 종목 선정 최종 제외 결정에 아쉬움을 삼켰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LoL, PUBG 모바일, 스트리트 파이터 V, 피파온라인 4 총 네 종목에 대표팀을 보낸다.

e스포츠 종목은 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그 때문에 이번 대회 종목 결승전 중 입장권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표를 구하기도 어렵다.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e스포츠는 유일하게 입장권 판매에 추첨 시스템을 운영하는 종목이다.

e스포츠 경기는 지난 24일에 시작하여 오는 2일까지 열린다. 해당 경기는 전례 없는 결투이고 한국이 e스포츠 전통 강국으로 꼽히기 때문에 한국의 메달 수확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난 8일, 무신사의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이 입을 단복을 공개했다. 데님 소재의 상·하의, 신발, 가방, 벨트 등 8개의 아이템을 한 세트 구성했다. 선수단의 젊은 에너지를 넣기 위해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스타일로 제작한 점이 특징이다.

단복 콘셉트는 '백의민족'에서 영감을 받았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예로부터 지조와 기개를 상징하는 흰옷을 즐겨 입어왔던 우리 민족의 전통을 아이보리 컬러의 데님 세트업으로 재해석했다."라고 전했다.

재킷의 절개 라인과 바지 주머니 자수는 한옥의 '팔작 지붕'을 표현했다. 단추는 태극 무늬가 중앙에 들어간 한국의 전통 복인 '대복' 모양에서 착안했다. 또, 전통 노리개 모양의 키링을 별도로 제작해 포인트를 더하고 벨트, 신발, 양말 등에 태극기와 '팀 코리아(Team Korea)' 로고를 새겨 넣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오는 8일까지 진행되니 폐막식에서도 한국 선수단이 단복을 입을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 제목: 그대를 사랑합니다
- 감독: 추창훈
- 출연: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 장르: 드라마
- 상영시간: 118분
- 개봉: 2011.02.17

만석은 새벽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하는 무뚝뚝하고 까칠한 노인이다. 평소처럼 우유 배달을 하던 만석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튕겨 나간 돌에 맞아 넘어진 송 씨를 보게 된다.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평소 차가운 만석이지만 비슷한 시간대의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송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주차 관리인 군봉은 자식을 다 키워 출가시키고 중증 치매에 걸려 집에만 있는 아내 순이를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살아간다. 군봉은 자신이 출근하는 사이에 아내가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까 봐 자물쇠를 잠고 출근한다. 그러던 어느 날 군봉은 깜빡하고 자물쇠를 잠기지 못하고 출근하고 그사이, 순이는 밖으로 나와 길을 잃어버린다.

이때 산책을 나온 만석이 주위에 떨고 있는 순이를 놀이터에서 발견한다. 순이는 만석이 남편 군봉인 줄 알고 계속해서 매달리는데, 만석은 그런 순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닌다. 한편 송 씨도 순이가 없어진 것을 알자 동네를 찾아다닌다. 만석과 순이, 군봉과 송 씨는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만나게 되고 넷은 친구가 된다.

만석은 이름도 없고 여러 아픔을 가지고 지내는 송 씨에게 '이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렇게 만석과 이쁜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만석은 글을 모르는 이쁜을 위해 그림 편지로 첫 데이트의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린다. 만석은 가슴 뛰는 사랑에 마냥 기분이 좋지만 이쁜은 그런 사랑이 두려운 눈치를 보인다. 과거에 이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편 순이는 불치병까지 걸리고 만다. 아픔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순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 군봉은 같이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린다. 더는 지탱할 힘과 의지를 상실한 군봉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사는 아내를 위해 삶을 마감하고자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내와 함께 동반자살을 선택한다.

만석과 이쁜은 친구 부부 군봉과 순이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고 이쁜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만석을 떠나 고향으로 귀향하게 된다. 그 후로 몇 년이 흐르고 만석도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 평소에 타고 다니던 낡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사랑했던 이쁜을 태우고 순이가 항상 벽에 그리던 그림 속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며 끝을 맺는다.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노년기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다는 것. 삶의 아름다움과 진실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오픈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가?
알 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는 어디까지 허용 되어야 하며,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속 모순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며 또한 그것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나 신문, 커뮤니티의 글까지도 알 권리 속 하나의 매체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선을 넘어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알 권리는 사생활 침해일까?

사람들은 보통 출근길에 인터넷 기사나 뉴스로 하룻밤 사이 일어난 사건, 사고 등을 접한다. 일반 사람의 경우, 안타까운 소식에 탄식을 하며 슬퍼하기도 하고, 기쁜 소식에 긍정적인 미래를 꿈꿔보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뉴스 속 인물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존재하는가? 아무도 피해자나 가해자, 뉴스에 나온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과연 피해자가 자신을 동정해 주기를 원할까? 가해자가 자신을 욕하기를 원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른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자신이 위기 상황에 놓여 누군가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나를 찾아 구해줘야만 한다. 이때 경찰에게 필요한 나의 개인 정보와 위치 파악에 필요한 모든 수단은 과연 사생활 침해일까? 구출된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마워한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노출된다면 범죄 관련 연락이 오는 것만으로도 화를 낼 것이다. 비슷한 예로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어떤 장소에 가려다가 긴급 문자로 감염자가 방문한 곳을 알았다면? 다행이라며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감염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한다며 감염자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곳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그대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야 한다. 이처럼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 속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사생활이 문란한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한다. 이는 과연 사생활 침해일까, 국민의 알 권리일까? 사람들은 전부 후자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사생활의 문란함과 나라의 정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정치인 본인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 다른 인물을 대입해 보면 답은 완전히 달라진다.

사생활이 문란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는 과연 사생활 침해일까, 국민의 알 권리일까? 놀랍게도 팬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전자를 택할 것이다. 사생활의 문란함과 연예인으로서의 능력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한 마케팅을 한다. 이는 생활 속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소개해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접한 해당 연예인의 팬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믿어 상품을 구매하면서 수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대중들을 통하여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광고가 아닌 다른 사생활은 공개되고 싶지 않다고 피해를 호소한다면 이는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렇듯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다른 두 개의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기준선은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인가?’로 정해진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견은 항상 달라질 수 있으며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는 공존하고 있다. 알 권리로 인해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생활 침해가 아닌 그저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해보기 전에 자신이 알 권리를 위장한 사생활 침해를 누군가에게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당한 선의 알 권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 | 강수아 기자 (xv0915@jj.ac.kr)

침해받는 권리

미디어가 발달하고,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유행의 흐름은 더욱 빨라졌다. 유행의 중심에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의 유명인들이 있다. 미디어와 매체의 발달로 일반인은 유명인의 모든 것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유명인이 입은 옷, 신발, 화장품 정보를 비롯해 사는 곳, 연애 여부, 건물 매입 여부, 가족 정보 등 사적인 부분까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의 사적인 부분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알 권리’ 때문이다.

‘알 권리’는 국민 개개인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즉,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접근, 수집, 처리하거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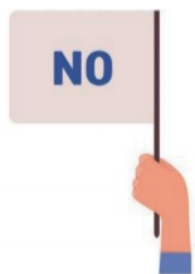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는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유명인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인의 공익을 위해 유명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익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 적이 있었다. 강릉시청 트위터 계정에는 한 확진자의 기본 인적 사항은 물론 성과 나이, 구체적인 직업까지 공개돼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질병을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공개한 정보였지만,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했다.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만 하더라도 확진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동선이 공개되면 전 국민이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추측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는 취재를 하거나,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열애설을 담기 위해 기자들은 온종일 특정 연예인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취재가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면, 더 오랜 시간 기자들은 특정 연예인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취재할 것이다. 이름 모를 누군가가 나를 온종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나를 지켜본다면 얼마나 섬뜩할까? 더군다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이 기사로 나와 온 국민이 나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기 그지없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명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라는 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떠나 한 인간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한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도 당연하게 침해했는지 모른다. 한 국가의 국민에게 주어진 알 권리란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파헤쳐 그 속에 숨겨진 사실과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알 권리에 대한 정확한 권리를 우리는 현명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적정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기사 |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1020@jj.ac.kr)



목요아침기도회 - 그리스도 중심의 삶



우리 대학 선교지원실에서는 2023-2학기 목요아침기도회를 실시한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대학교회에서 진행된다. 목요아침기도회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주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학기 첫 목요아침기도회는 이달 7일에 드렸으며, 전주동양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한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_골로새서 3:15-17〉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선교지원실 오여찬(ssd5206@jj.ac.kr)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은 호수였다. 초록이 물결로 출렁이는 8월의 산을 올랐다. 휘몰아치는 바람과 폭우가 스쳐 지나간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었다. 골이 깊어지고 말랐던 시냇물이 졸졸졸 소리를 냈다. 산마루에 올라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키 작은 나무는 멀쩡한데 그 옆에 있는 10미터는 족히 될 커다란 나무가 뿌리를 드러낸 채 나자빠져 있었다. 작은 나무는 어떻게 그 비바람을 버텼을까?

▼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24~27).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집을 짓는 사람과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셨다. 우와 ‘배짱이와 개미’에서처럼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는 말씀이시다. ‘어느 집이 튼튼한가?’는 외양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 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느 집이 튼튼한가가 드러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들 잘 자라난 나무인데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닥치자 어떤 나무는 살아 남고 어떤 나무는 쓰러졌다. 내면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 나는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깊은 것으로 믿거나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언어나 행위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적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깊이 과 내려가지 못하고 겉으로만 높이 쌓아 올리는 일에 골몰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아멘.

장선철 교수 (前 상담심리학과)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기도문

전주대학교를 위한 기도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육부에서 주관한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 1차년도 평가에서 전국대학 최고인 S등급 평가를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전주대학교가 하나님과 함께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대학으로서 학생과 지역을 더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셔서 꿈을 갖게 하시고 학생들의 성공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학교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방의 소멸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 가는 전주대학교와 모든 구성원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먼저 된 자로 가진 지식을 나누고 연구하게 하시고 교수들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은 수시모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을 기대감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여기 전주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각각의 분야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르고 잘 성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장순 교수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8:6)

‘여호와’가 주어라는 사실보다 ‘내 편’이라는 술어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두둑한 배짱도 생긴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도 뒤를 보주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의미의 이기적인 방점을 찍는다. 그러나 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의 틀을 구성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주님과 돈독한 친분으로 바꿔치기 했을 뿐이다. 내게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건 세상에서 최고의 주먹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우리

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세상이 ‘재는 건드리면 안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제대로 풍기고 그분의 빛을 투명하게 비출수록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독설’을 쏟아낼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핍박의 대상이 되셨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사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심히 흥분해서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 이상의 두려움이 없다는 신론 중심적인 판단에 근거한다. 코의 호흡은 끊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세상이 조금만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곧장 머리를 두르고 서명운동 펼치고 거기에 한 종교의 대표라도 되는 양 ‘기독교’란 간판까지 걸어서 별뿔처럼 달려드는 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다.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유익을 도모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려거든 그냥 시민이나 관원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내가 큰 사역을 한다’는 광고성 멘트나 홍보는 자제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진실하게 사랑하고 보사하면 된다. 유명세에 보탬이 될만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긁어모아 사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과시하며 자신의 역량 이상의 큰 일꾼인 것처럼 치장하는 것이 무슨 유익인가! 모임의 덩치가 크고 유명인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덩달아 커지

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님을 모르는가! 진리의 품격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감정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박한 무리로 격하시킬 위험성이 크다.

세상의 방식처럼 세력을 과시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이킬 것이라는 착각에 집단으로 중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호와와 내 편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과분하기 짝이 없는 약속이다. 하나님과 편이 될만한 어떤 공통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수로서 독생자를 죽이는 사악한 진영을 편들었던 우리를 짝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까부는 놈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하늘에서 무한대로 제공되는 반박과 보복의 탄알을 마구 난사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그분을 일평생 닮아가되 예수님이 보이신 분까지 이르도록 경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악해지는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저항은 거기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범죄를 은닉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겁없이 세상을 마구 겁박하는 종교적인 갑질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한 인격과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항이다.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고,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는 건설적인 저항이다. 전주대가 이러한 저항의 최전방에서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인가?

<쉽게 읽는 성경> ⑦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2세기 후반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했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그의 주요 저술 중 하나인 『이단반박』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인가? 교회와 학자들의 세계가 무슨 상관이며, 기독교인과 이단자들이 무슨 상관인가? 우리의 삶의 원리는 솔로몬의 ‘주량’(스토아 [=‘주량’] 철학을 염두에 둔 표현)에서 나온다.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솔로몬 자신이 가르쳤기 때문이다. 스토아주의 철학이나 플라톤의 철학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가미된 기독교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복음 외에 연구할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앙인이 된 후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첫째가는 원리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와 세속 학문,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기 원했고, 신앙인들이 교회 밖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 문화

를 추구하거나 즐겨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는 것 같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이러한 태도는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저런 형태를 띠고 지속되어 왔다. 교회 스스로 세상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창조된 세계를 탐구하는 일과 신의 형상의 일부로 인간의 본성에 주어진 이성의 활동까지도 신앙의 이름으로 배격하고 단죄하는 다양한 가르침과 운동이 있어 온 것이다. 이른바 ‘기독교 반지성주의’의 뿌리는 깊고 넓다.

하지만 테르툴리아누스가 2세기 당시 초기 기독교의 유일한 대변자가 아니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같은 정반대의 목소리도 교회 안에 존재했다. 더욱이 지난 2천 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최첨단의 지식을 통합하고 해석하여 시대마다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독교 지성주의, 자연신학의 시조는 테르툴리아누스보다 100년 이상 앞서 기독교 교리의 터를 놓은 바울에게서 발견된다.

누가가 전하는 바울의 행적에 따르면, 바울은 고대 지중해 세계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 아테네에 방문한 적이 있다(사도행전 17:16-34). 바울은 홀로 아테네에 머물러 시내를 배회하다가 “마음에 격분했다.”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이었다. 그는 “장터”(아고라)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는데”(17절), 거리 토론의 상대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이 지명은 그리스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크로폴리스 광장 북서쪽에 있는 낮은 산을 가리킨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먼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다이몬

들을 두려워함)을 언급한다(22절). 이 단어 속에 들어 있는 ‘다이몬’은 신성을 지닌 초월적 존재를 통칭한다. 바울은 아테네 시내 곳곳에 마련된 신상들과 제단들을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발견했다. 아테네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 바울은 그 신에 대해 알려 주려고 했다(23절).

아테네인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했던 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신이 만물을 지었고 만물의 ‘주재’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지은,” 즉 물질로 지어진 건물에 계시지 않고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섬김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신은 풍성한 자비와 능력으로부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준다(25절). 생명의 배움을 통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민족들로 나누어 거주의 경계를 따라 살게 한 것이다. 사람은 그 신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 사람에게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을 것이다. 신을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바울은 대담한 인간론을 펼친다. 인간은 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생물학적 삶과 정신적인 활동에 있어서 인간은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마치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기원전 3세기 스토아 철학자이자 시인인 아라투스)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세상 다른 어떤 존재와 달리 인간은 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영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 은, 돌로 새겨진 것을 신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며, 신 아닌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연설은 ‘자연신학’을 피력하는 대표적인 설교로

꼽힌다.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강조한다는 점, 언약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기보다는 전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경험과 속성을 중심으로 구원을 설명한다는 점, ‘지나간’ 시대의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심판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한다는 점 등이 이 설교의 특징이다. 구약 성서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설교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청중과 함께 호흡하고 청중의 언어를 심분 활용하는 소통 방식이다. 바울은 여기서 상황과 복음을 잇는 담대한 시도를 보여준다. 자연과 문화 그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 그 속에 참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물음들이 담겨 있다. 그 물음을 끄집어내서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그것은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어떤 성서 해석자들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바울의 실패한 시도의 한 예로 이해한다. 이 설교에 대한 청중의 응답이 모호했고, 바울을 따르며 믿은 사람이 기껏해야 ‘몇 사람’이었다는 이유에서다(34절). 하지만 청중의 반응이 설교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이 설교에서 바울은 성서 내용을 요약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상력과 창의력, 예민한 문화적 감수성과 관찰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서도 설교의 내용 하나하나에 성서의 가르침과 성서로부터 확립된 신학적 명제들이 녹아 들어있다. 오늘날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도 바울을 따라 아테네와 예루살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기자칼럼

관계 속의 우리



마경진 기자
(alfpwnsg12@jj.ac.kr)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인간관계의 도구와 기술, 관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간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 또는 대인관계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쁜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특징을 반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모래성을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자

먼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진다. 타인이 나에게 먼저 관심을 보일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관심을 호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관심 중에서도 '순수한 관심'이 중요하다. 어떤 목적성을 갖고 접근하면 상대방은 악의를 눈치채고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순수히 상대가 궁금해서 알고 싶다는 관심이면 충분하다.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자

상대와 대화 하면 우리도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때 상대의 말에 호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도, 더 많이 경청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이 필요하다. 그냥 조용히 상대가 말하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려고 하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논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논쟁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견 차

이가 발생할 때 나의 논리를 토대로 이기면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에 좋을 수는 있지만, 상대는 부정적인 기분을 느낄 경우가 높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설상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필요하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순간 꺾어 버릴 수 있는 행동이다.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재치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갈등만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추천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바로 대화를 진행하고 후회한다.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하지만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기 때문이다. 감정을 전달하는 에너지가 의사소통하기에 충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가장 적합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인간관계란 상대방과 친한 관계를 만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갈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학 생활을 하는 우리도 인간관계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 주변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 지침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면 상대방과 적절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 일부이다.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려는 모습만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기자칼럼

지구온난화, 인류는 정말 100년도 남지 않았다



박현빈 기자
(hans8150@jj.ac.kr)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류의 종말이 100년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100년 멸망 시나리오'라고도 불린다.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섬나라와 해안 지역은 대부분 잠기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노년층 인구가 아동층과 청장년층의 인구를 역전할 것이며, 2100년에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4도가 올라 지구 공간 대부분이 살기 힘든 지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극단적인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터질 때,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잦은 화산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같은 '인류 멸망'하면 항상 자연적인 현상만을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멸망 시나리오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앞서 말한 지구의 온도 상승은 곧 우리에게 치명타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100년 멸망 시나리오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다.

100년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

약 6,500만 년 전 마지막 지구 대멸종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한 약 1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기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또한, 현대 제2차 산업혁명(제2의 물결)이 발생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근 1만 년 동안 기온은 1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시작된 1900년대부터 탄소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도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1900년대 당시 평균기온은 약 13도였으나, 현재 2023년 7~8월의 평균기온은 17도에 육박할 정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약 100년 사이에 기온이 4도나 뛰어 올라버린 것이다. 이에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2배 올라 해수면이 7cm가 올랐으며, 지구에 사는 동식물의 수가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계절도 겨울보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멸망을 앞당긴 인간의 행동들

인간이 온난화를 일으킨 대표적인 행동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장들이 세계 각지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증기기관과 자동차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 인간의 필수 교통수단이 된다. 이에 인간은 편리한 삶을 찾아 누리면서 매연과 폐수 배출로 온난

화라는 문을 인간 스스로 열게 되었다. 둘째,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어 지구를 정화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원료로 하는 상품이 많아지자 벌목 작업이 지속되면서 100년 사이에 지구 숲이 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환경보존을 위해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숲이 채워지는 속도가 사라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셋째, 전쟁이다. 화약을 사용하는 개인화와 포, 전차, 로켓 등으로 인해 전쟁 지역의 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진다. 국가 개인의 욕심으로 일어난 전쟁은 승리한다고 해도 잠깐의 기쁨만을 누릴 수 있을 뿐, 황폐화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린다. 또한 복구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과학기술로 인해 추가적인 예산과 탄소배출이 발생하게 된다. 쓰레기 배출량과 에어컨, 히터 작동시간 증가, 인구나 자동차 수의 역전 현상 등과 같은 우리 일상생활 속 미시적인 요소들도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약 21도에서 22도까지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수면은 80cm까지 상승한다. 육지의 반절이 바다로 잠기게 되어 지구 공간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100년 멸망 시나리오를 피할 방법은

방법은 꼬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 간단하다. 지구를 다시 옛날처럼 되살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간단하다고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예전처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계 수와 숲의 면적을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인구수도 적정선으로 조절해야 한다. 거시적인 방안은 기술적으로 석유나 화석연료를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살아가는 시대가 일상화 되어야 한다. 미시적인 방안은 쓰지 않는 전기 끄기, 콘센트 뽑기, 재활용, 대중교통이용 등 평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어차피 지구도 태양이 커지면 못 살게 될 텐데 100년 후의 기술력이라면 지구를 떠나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지만, 화성에 대기를 조성하려면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을 합친 위력의 100배 이상 필요하다. 화성을 선택하는 것보다 지구를 되살리려 노력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지구를 살릴 작은 노력 하나가 100년 동안 모인다면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어쩌면 태양이 터질 그 날까지 100억 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교수칼럼

콘텐츠가 글로벌이다



이용욱 교수 (한국어문학과)

올해 한국 대학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이다.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이 이 화두를 금과옥조 삼아 교육부 공모사업인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대학의 기본 조건은 유연한 교육체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인재 양성, 지역발전의 싱크탱크 기능이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라는 것이다. 전주는 어떤 도시인가? 올해 전주시는 일본의 시즈오카현, 중국의 청두·메이저우와 함께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정한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 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인 한복, 한식, 한지, 한옥, 한국음악의 중심지가 바로 우리 대학이 위치한 전주이고 전라북도이다. 새로운 전복을 위한 도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문화·관광'은 무형의 콘텐츠인 '문화'와 유형의 콘텐츠인 '관광'을 핵심 전략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대학교가 지역대학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글로벌 전략은 너무나 자명하다. 콘텐츠야말로 지역과 대학의 가장 경쟁력 있는 교집합이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무빙>이라는 OTT 드라마가 있다. 미국 포브스지는 <무빙>을 "호소력 짙은 감정적 서사를 지닌 이야기"라 평했고, 라이프스타일 아시아 홍콩은 "모든 사람들을 몰입하게 하는 특별하고 멋진 이야기"라고 극찬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자가 불의에 맞서 싸운다는 보편적인 주제가 '가족'과 '휴머니즘'이라는 한국적인 정서와 맞물려 만들어 낸 <무빙>

의 스토리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함께 아우르는 '글로벌' 개념이 문화산업의 킬러 콘텐츠로 형상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우리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성공에서 K-콘텐츠의 방향성이 글로벌임을 확인하였고, <무빙>은 그것을 다시금 입증해 준 것이다.

글로벌 사업은 다시 도전해야 하고 꼭 선정되어야 한다. 지역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콘텐츠는 전주대학교의 가장 경쟁력 있고 강점이 있는 분야이다.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누리사업(NURI)에서 '전통문화콘텐츠 X-edu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고,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문화산업대학을 신설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올해 인문대학을 인문콘텐츠대학으로 외연을 확장하였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고전번역 대형 국책사업을 연달아 수행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전 콘텐츠 DB를 구축하였고, 문화융합대학과 문화관광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콘텐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훌륭한 교수진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제 전주대학교는 콘텐츠 중심의 혁신적이고 담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때이다. 대학이 일종의 우주(The Universe)라면 기존의 11개 단과대학은 항성, 행성, 위성으로 재편되어 평면적인 계통도에서 벗어나 입체적이며 유기적인 네트워크 학사 단위로 전환하고, 학과는 조합과 융합이 용이하도록 블록형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호남을 거점으로 영남, 충청, 강원과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글로벌 콘텐츠 교육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전주대학교가 담당하는 큰 그림이 바로 담대한 혁신이다. 전주대학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이 무엇인지 본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기자칼럼

22년 추억의 끝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지난 8월 30일, 프로 농구팀 KCC EGIS(이하 KCC)가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옮겼다. KCC는 전주에서 22년 동안 5번의 정규시즌 우승과 5번의 KBL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경험했던 만큼 많은 전주팬을 보유 중이었다. 그렇기에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KCC 이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시작했다.

'전주' KCC egis에서 '부산' KCC egis로

KCC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연고지 이전을 고민했었다. 가장 큰 이유는 1973년에 건립된 노후화 된 전주체육관 때문이다. 전주체육관은 옛날 방식의 좌석 배치와 안전 등급 C등급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았다. 당연히 KCC에게는 새로운 체육관이 필요했다. KCC는 이러한 고민 끝에 10개 구단 중에서도 전주 팬들이 농구에 가장 열정적인 팬임을 고려하여 기다리는 것을 선택했다. 전주시와 체육관 신축을 약속하며 계획을 철회한 것이었다.

그 후로 7년, 전주시는 농구장이 아닌 야구장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심지어 전주체육관의 소유권을 가진 전북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주체육관을 비우고 군산 월명체육관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7년 동안 기다린 KCC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부산시로 떠나게 됐다.

전주시의 대응

전주시는 KCC의 연고지 이전이 '야반도주'라고 질타했다. 전주체육관 철거 일정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뤘고, 그 시기에는 신축경기장이 완공될 것이므로 사실상 홈구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보름도 채 걸리지 않아 이전이 확정된 것에 대해 "대도시로 이전 할 빌미를 억지로 만들어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의 여러 단체는 성명서로 KCC를 비난했다. 22년간 열정적으로 응원한 팬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행을 선택한 KCC에 실망했으며,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팬들은?

일반적으로, 구단이 연고지를 떠나면 지자체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더 큰 마케팅 효과를 받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이다. KCC도 전주시보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부산시를 택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팬들은 전주 시청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며 비난을 퍼부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열었다. 약속대로라면 현재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춰졌어야 하는데, 농구장은커녕 현장에는 풀과 잡초만 무성하다. 전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 대가는 KCC를 사랑한 전주시의 시민들이 치러야 했다.

전주의 조용한 겨울

과거 KCC는 영구결번인 추승균과 이상민을 비롯하여 하승진, 전태풍, 강병헌 등 걸출한 슈퍼스타들을 앞세워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KCC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작년에는 한국 프로농구의 간판스타인 허웅과 이승현을 영입했고, 올해에는 21-22시즌 MVP 최준용과 영구결번인 이상민을 코치로 복귀시키면서 23-24시즌의 기대를 최대로 높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산' KCC의 소식은 전주 팬들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전주시의 뜨거운 겨울이 사라진 것이다.

필자는 전주 KCC의 열렬한 팬이었다. 라건아의 덩크에 환호하고 송교창의 돌파에 박수를 보냈으며, 허웅과 이승현의 팀에 합류할 때는 우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선수들이 전주에서 농구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KCC'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부산 KCC'에 응원을 보내며 전주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전주대학교 신문사 알아보기

신문사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주대학교 신문사는 1965년 5월 15일 창간하여 현재까지 58주년을 맞이하며 '전주대학교의 정통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문 제작 전 과정(기획, 기사 작성, 편집, 디자인, 편집, 배부)을 학생 기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주대신문은 취재, 보도, 편집, 배부 등 모든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면 신문 발간 및 인터넷신문 운영

발간: 연간 10회(학기당 5회) | 운영: 지면 신문 발간, 인터넷신문 운영 (https://news.jj.ac.kr/)

지면 구성: 총 16면 | 뉴스, 생활(인사 인터뷰), 기획, 신앙과 성교, 오라클(학생과 교수 합동), GLOBE, 광고 및 알림

신문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면 기획: 기자들이 모여 한 학기 또는 한 주수의 주제를 선정, 기사를 간담 피드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해요

기사 취재: 교내 교외 소식, 현장 인터뷰, 기획에 따른 기사를 취재해요. 구성원들에게 알맞은 스토리라인, 헤드라인, 인제션

기사 작성: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

지면 배치와 기사 피드백, 교정 교열을 거쳐 기사를 검토해요

지면 디자인: 신문 형태로 만드는 중요한 작업

신문 배포: 배너, 드로 등물 제작하고 신문 전달을 디자인해요

완성된 신문은 교내 신문 기자에게 배부! 온라인(인터넷신문(news.jj.ac.kr))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정기 및 생생 시, 활동 참여(인터뷰) 기자! 학기 별 CUP(인제) 기자! 부임 후 교육, 생활 조형 위주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 향상 활동에 필요한 기획, 이드미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 다른 학과 참가, 선배와의 소통을 통하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대학신문사 문의처

제보·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위치	학생회관 320호(대학신문사)
문의처	편집실(063-220-2442), news@jj.ac.kr 운영실(063-220-2441)
이용시간	평일 9:00-18:00

대학신문사에서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알람받은 내용이나 취재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카카오톡 제보 | 홈페이지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 간 | 김주란
편집장 | 송민호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울
인터넷신문: news.jj.ac.kr

Jeonju University Introduces 1,000won Breakfast Highlighting Jeollabuk-do Local Food

Jeonju University,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Jin-bae, recently launched its unique 1,000won breakfast initiative. Tailored for the MZ generation of college students, this breakfast incorporates fresh agricultural products from Jeollabuk-do, reflecting the region's rich local tastes and values.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an affordable yet nutritious meal option and has been received with much interest from both students and the local community.

The 1,000won breakfast initiative, champion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s designed to address the rising food prices and busy schedules that often lead students to skip their morning meal. This program allows students to access high-quality breakfasts for just 1,000won, alleviating financial strain.

In the previous semester, Jeonju University organized a 1,000won breakfast recipe contest and conducted a preference survey. The aim was to craft a "Jeonbuk-style 1,000won breakfast" that featured local ingredients. This not only supported local agricultural supply chains but also sought to introduce healthier and more flavorful breakfast options to students. Winning recipes, further refined in partnership with the Department of Korean Culinary Arts, were introduced to students during the final exam period of the last semester.

Vice President for External Affairs, Hong Seong-deok, who oversees the 1,000won breakfast project, expressed his enthusiasm, stating, "The 1,000won breakfast embodies the values of Jeonju University by showcasing Jeollabuk-do's local food. Our goal is to support local farmers and offer students a wholesome breakfast, promoting a healthy and enriching college experience. We hope students will embrace this initiative."

The university offers these breakfasts at the Star Center and Student Center cafeterias every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from 9:30 to 10:30 a.m. The frequency of the offering will be adjusted based on student demand and budget considerations.

Furthermore, to sustain this program, Jeonju University has initiated the 'Local Food 1,000Won Breakfast Fundraising Campaign'. This campaign encourages regular donations, starting from 10,000won monthly. Targeting alumni and the local community, the objective is to ensure that even more students benefit from quality meals in the long term.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and Harim Co., Ltd. Strengthen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 Fostering local talents through the employment-focused 'Harim beSTAR' program is a shared goal -

Jeonju University recently reported that President Park Jin-bae and several directors visited Harim Co., Ltd., a leading food company in Mangseong-myeon, Iksan-si, on the 4th. The purpose of the visit was to reinforce industry-academia collaboration.

This engagement was organized as a part of Harim Co., Ltd.'s 'Harim Chicken Road' (HCR) program, designed to explore strategies for sustained collaboration, particularly emphasizing the rejuvenation of the K-FOOD and food tech sectors.

The HCR program provides a comprehensive sensory experience—letting participants observe, hear, feel, and taste Harim's chicken production process. It showcases the slaughter, the 'Fresh Rod' processing, and the 'Secret Road' meat preparation. Recognized as an outstanding representation of food tourism, this program elucidates the journey of Harim's chicken from farm to table.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President Park Jin-bae said, "Jeonju University and Harim Group have been collaborating on a recruitment-centric talent nurturing initiative, and it has shown positive outcomes. Through this visit, we've gained deeper insights into Harim Co., Ltd.'s unique strengths. I believe that such collaborations can propel the K-FOOD and food tech sectors even further."

Harim Co., Ltd.'s CEO, Jeong Hoseok, responded by highlighting the global acclaim of K-FOOD. He mentioned, "Korea's food industry has achieved world-class standards. Our Samgyetang, for instance, is relished globally, elevating K-FOOD's prominence. The future of our nation is intricately linked with the food sector. We remain committed to broadening our efforts in nurturing local talents to meet this promise."

Since 2018, Jeonju University and Harim Group have co-run the Harim beSTAR program, aimed at linking education to employment. Students selected during their sophomore year and who complete the program are assured jobs with Harim Group upon graduation. From 2019 to 2022, 80 students have benefited from this initiative. The objective remains clear: to develop industry-ready professionals to address societal needs. This year, 10 more students are set to join this mission.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Launches '2024 On-site Admission Counseling Cafe' Initiative

Jeonju University,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Park Jin-bae, unveiled its latest initiative on the 6th: the 'Visiting Admissions Counseling Cafe' aimed at prospective students and their parents.

Directed by Joo Jeong-ah, the Office of Admissions at Jeonju University has rolled out this on-site counseling cafe to provide comprehensive college admission information to high school students. Ahead of the imminent rolling admissions, the initiative aims to offer career guidance and further academic counseling for candidates and their parents.

Now in its fourth year, the 'Visiting Admission Counseling Cafe' program is distinctive. Instead of expecting students and parents to come to them, admissions officers travel to the neighborhoods of prospective candidates. This approach ensures they can impart vital college admissions information and offer guidance in a relaxed environment.

The initiative spans across the Jeonbuk region, with sessions slated for Jeonju, Iksan, and Gunsan. Specific locations include popular cafes in Jeonju guesthouses, Jeonju's new town, the vicinity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ohyeon-dong in Iksan, and Susong-dong in Gunsan.

On September 2, this unique counseling cafe initiative was inaugurated simultaneously in Jeonju, Iksan, and Gunsan. Over 110 aspirants from across the nation registered to participate. The event saw a massive turnout,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from distant regions like Incheon and Daejeon. Due to its success, another session is scheduled for Saturday, September 9th. The counseling sessions are available from 10 a.m. to 4 p.m. Students can pre-book 30-minute slots, although walk-in registrations are welcome.

Attendees can expect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2024 entrance examinations, including specifics of the admission process, last year's entrance exam results, details on the blind interview process, and other vital details tailored to each student's application strategy. Further insights about Jeonju University will be available through a Q&A segment.

Prospective students and parents interested in this initiative can register in advance via the Jeonju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website (<https://www.jj.ac.kr/iphak>) or through the online survey form (<https://forms.gle/AZRLBLxrvzKiJgJ6>).

In the backdrop of this innovative approach, it's noteworthy that Jeonju University's Admissions Office has been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 to high school education for 16 consecutive years. They remain committed to conducting fair and transparent college admissions.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Jeonju University Business School Unveils AI-Integrated Metaverse Service

Jeonju University's College of Business, headed by Dean Kyungjae Lee, has unveiled its innovative metaverse service integrating AI technology, set to launch on August 29.

The newly introduced metaverse service is powered by Gather Town, a platform known for its video-conferencing capabilities within a metaverse environment. This initiative facilitates seamless 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faculty, staff, and the public.

A standout feature is the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 Freedom Hall, the iconic business school structure. Users can embark on a virtual tour of the building, eliminating the need for an on-site visit. For an immersive experience, imagery and videos of notable spots within the Freedom Hall, including the scenic cherry blossoms and the metasequoia road, have been incorporated.

To enhance user interaction and provide round-the-clock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school, a state-of-the-art ChatGPT-based chatbot has been installed. This integration aims to transcend the constraints typical of conventional metaverse platforms.

"We're elated to introduce a groundbreaking metaverse service empowered with AI," remarked Dean Lee Kyung-jae. He further emphasized the unlimited potential of the metaverse, stating, "Capitalizing on its boundless nature, we aspire to transition our traditional in-person and telephonic civil and counseling services to the online realm. Additionally, our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faculties within the business school will pave the way for advancements like AI-based tutors."

The launch of this metaverse service is poised to enhance user engagement, offering invaluable information and novel experiences to students across various departments within the College of Business. These departments encompass Management, Finance and Insurance, Logistics and Trade, Real Estate and Land Information, Accounting and Taxation, and IT Finance. This initiative is anticipated to bolster the university's image positively.

For those keen on exploring the metaverse service of the College of Business, simply visit their official website [<http://biz.jj.ac.kr>] and click on the 'College of Business Metaverse' shortcut.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全州大学留学生与职员成为国际朋友



据全州大学国际交流院消息，为了帮助外国留学生在韩国生活，并适应大学学习，由全州大学国际交流院带头，积极开展了职员与留学生一对一结缘，成为国际朋友活动。从9月14日开始，一些非常了解大学教务制度的职员积极参与了此次活动。这意味着留学生的大学生活，特别是在教务方面得到不少帮助。一对一配对成为国际朋友的职员称为“이끄미”，留学生称为“따르미”。此次活动共有13组参与。他们要进行的项目包括定期咨询、文化交流、文化体验、小组讨论、访问宿舍和办公室等。这个活动要求职员以爱心照顾留学生，鼓励和支持留学生实现自己的梦想，帮助他们成为未来的全球领袖。

一位来自中国的留学生（就读经营系）表示，他也想像韩国年轻人一样享受生活、自由自在是他的愿望。但由于学业、语言学习和兼职工作等方面得不到帮助，感到留学生活比较吃力。因此，他对这个活动很感兴趣。希望通过结缘的国际朋友的帮助，让自己的学习、生活都能有所改变。

全州大学国际交流院院长诸慧琴教授表示，作为一个外国人在陌生的土地上生活是一件困难的事情，需要勇气。希望通过职员和留学生的结缘，让留学生在韩国过得开心，学习进步，并实现自己的理想。

此外，国际交流院计划让社区成员以及教职员工与所有外国留学生都进行1:1配对，来帮助全州大学的留学生。

全州大学留学生与CBMC全州分会共同举行郊游活动



据全州大学国际交流院消息，9月16日，CBMC全州分会（会长，吴正植，音译）的80名会员和全州大学50多名留学生在全罗北道任实郡四仙台共同举行了郊游活动。CBMC中文名称为工商基督徒协会，此次工商基督徒协会全州分会为了与全州大学留学生进行友好交流，协同全州大学国际交流院一同举办了郊游会。

参加此次郊游会的会员与外国留学生欢聚一堂，进行了一系列活动。包括自我介绍、介绍我们的全州生活、传统游戏和现代游戏、晚宴、其他娱乐活动等。会员们还为留学生提供丰富的奖品，让留学生们度过了一个快乐开心的时光。

在韩国生活已经两年的杨鑫（中国籍，就读经营系）表示：“难得走出校园，与当地社区的老师们交流，并学习韩国传统游戏。我觉得非常开心。”他还说：“会员们对我们留学生非常体贴、关心，给我们留下深刻、美好的印象。”

CBMC全州分会会长吴正植表示：“独自在外国生活的留学生们非常值得尊敬。我们将以对待自己孩子的心情，齐心协力支持、帮助那些为实现梦想而来到韩国的留学生们。我们还想扩大支援我们地区外国人的事业。”

朴珍培校长在活动中表示，建立地区大学和地区社会之间的合作关系至关重要。他呼吁基督教工商人士为促进地区经济的活跃、为外国留学生提供宜居的环境而尽心尽力。他还表示，全州大学将结合地区发展战略，并通过优秀人才的引进，为搞活地区经济做出应有的贡献。

교육방송국 JEBS

"지성과 낭만의 소리,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2023년도 2학기 신입국원 모집]

모집 부서

기획부 : 영상 프로그램의 기획안 작성 및 진행상황 확인 등 영상 제작 총괄

기술부 : 영상 촬영 및 교내 방송 송출 등 교육방송국의 전반적인 기술 총괄

편집부 : 방송국 영상 편집을 총괄

아나운서부 : 교내 라디오 진행(큐시트 작성) 및 아나운싱과 리포터 활동 총괄

지원서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제출: jebs@jj.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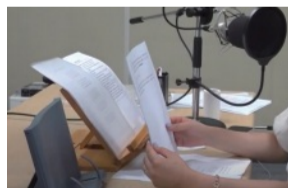


[뉴스 및 예능_유튜브 활동]



[뉴스]_전주대 졸업전시회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및 한식조리학과
23년도 졸업전시회



[예능]_야, 너두 할 수 있어

교육방송국 ver.
한호흡 켈린지 도전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예능]_방송국의 여름방학

교육방송국의
여름방학 모습이 담긴 브이로그
쿠키영상까지 즐기!

[교내 라디오 방송 활동]

[뉴스]_정오의 천장 : 월, 수, 금 점심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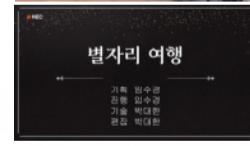
[종교]_심자가 사랑 : 화, 목 점심방송

[음악]_크레센도 : 매 아침방송
+ 수요일 저녁방송



[자유]_타임머신

월요일 저녁방송
과거의 건축물 이야기



[자유]_별자리 여행

화요일 저녁방송
별자리들 속 이야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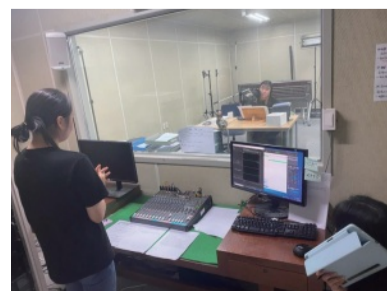


[자유]_은가비

목요일 저녁방송
교훈을 얻는 역사 이야기



문의사항은
맨 위 QR코드를 활용해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로해시태그

진로개발 관련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팀당 최대 80만원 지원)

모집 기간	선발 면접	운영 기간	대상
8. 16.(수) ~ 9. 3.(일)	9. 6.(수) ~ 9. 8.(금)	9. 18.(월) ~ 11. 24.(금)	전 학년

직무중심 취업동아리(추가모집)

동일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간 동아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모집 기간	선발 면접	운영 기간	대상
8. 21.(월) ~ 8. 31.(목)	9. 4.(월) ~ 9. 7.(목)	2023. 9. ~ 2024. 1.	2~4학년

공기업 및 대기업 준비반

공기업 및 대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모집 기간	참여자 선발(서류평가)	운영 기간	대상
9. 11.(월) ~ 9. 20.(수)	9. 21.(목) ~ 9. 22.(금)	9. 25.(월) ~ 24. 1. 26.(금)	2~4학년

취업특강: 잡(JOB)블레스유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특강

운영 기간	운영 방법	대상
9. 1.(금) ~ 11. 30.(목)	본교 사이버캠퍼스	전 학년

기업인재 우수인재 육성과정 beSTAR 이랜드(23기)

이랜드 현직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패션·외식·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전략 강의

구분	운영 기간	운영 장소	대상
교양 교과목	2023. 9. ~ 12.(매주 목요일)	지역혁신관 302호	3~4학년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 경제 특강 2탄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하는 실용 금융 지식 내용을 담은 특강

운영 기간	운영 방법	대상
9. 4.(월) ~ 12. 15.(금)	본교 사이버캠퍼스	전 학년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나에게 적합한 진로 찾기를 위한 자기 탐색 및 진로준비 계획 수립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9. 19.(화) ~ 9. 21.(목)	18:00 ~ 21:00	15명	1~2학년
2차	10. 10.(화) ~ 10. 12.(목)	18:00 ~ 21:00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청취력)

직무와 기업탐색, 역량개발 계획수립 등 실전 취업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9. 19.(화) ~ 9. 21.(목)	18:00 ~ 21:00	15명	1~2학년
2차	10. 10.(화) ~ 10. 12.(목)	18:00 ~ 21:00		

[기초]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이해교육: On-line

직무별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 이해도 및 취업 정보 제공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11. 15.(수) ~ 11. 16.(목)	18:00 ~ 21:00	100명	전 학년

[실전] 기업&직무 분석반

기업&직무분석 이해 향상 및 실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준비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11. 18.(토)	10:00 ~ 17:00	25명	3~4학년

[기초/실전] 자기소개서 교육: On / Off-line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개인별 역량 탐색 및 실습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기초 (2일간 진행)	9. 11.(월) 실시간 온라인 9. 12.(화) 대면	18:00 ~ 21:00	30명	1~4학년
실전 (2일간 진행)	9. 25.(월) 실시간 온라인 9. 26.(화) 대면	18:00 ~ 21:00	30명	

[기초] 면접 이미지 메이킹 교육

발성, 발음, 호흡 등 면접 스피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및 이미지메이킹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10. 4.(수) ~ 10. 5.(목)	18:00 ~ 21:00	15명	1~3학년
2차	11. 13.(월) ~ 11. 14.(화)	18:00 ~ 21:00	15명	

[실전] 면접교육: On / Off-line

전략적 자기 PR전략 및 면접 트렌드 파악을 통한 모의 면접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2일간 진행)	9. 18.(월) 실시간 온라인 9. 21.(목) 대면	18:00 ~ 21:00	20명	3~4학년, 졸업생
2차 (2일간 진행)	11. 6.(월) 실시간 온라인 11. 9.(목) 대면	18:00 ~ 21:00	20명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청년취준생 자기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집단상담	10. 4.(수) ~ 10. 5.(목)	18:00 ~ 20:00	10명	전 학년

취준 탈출 넘버원

취업 보드게임,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한 자소서 및 면접 준비 등 취준생을 위한 교육

구분	일정	시간	인원	대상
1차	10. 14.(토)	10:00 ~ 18:00	20명	3~4학년

Dream-JOB 인재풀 & 스터디

취업준비도 점검부터 입사지원까지 담당 컨설턴트 1:1 집중 관리

구분	운영 기간	수시 모집	대상
인재풀	2023.3. ~ 2024.1.	onSTAR MY커리어	4학년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스터디		개인별 신청 후 스터디 그룹 배정	

JJ 취업컨설팅 DAY

입사지원서 및 면접 전형 지원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구분	시간
입사지원서 컨설팅	매주 화요일 10:00 ~ 17:00
면접 컨설팅	매주 목요일 10:00 ~ 17:00

[직무역량강화 교육]

교육명	일정	시간	인원	대상
COS Pro (코딩전문가자격시험)	10월 중	대면+온라인	50명	3~4학년, 졸업생
드론 운용 전문가	9. ~ 11.	대면+온라인	30명	3~4학년, 졸업생

[Skill up 자격증반]

컴퓨터 실무능력 증진과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취득

교육명	일정	시간	인원	
ACP 포토샵&일러스트(3차)	9. 13.(수) ~ 9. 26.(화)	18:00 ~ 21:00	30	
ACP 인디자인(1차)	11. 6.(월) ~ 11. 10.(금)	18:00 ~ 21:00	30	
ACP 프리미어프로(2차)	11. 13.(월) ~ 11. 17.(금)	18:00 ~ 21:00	30	
필기	컴퓨터활용능력 2급	11. 6.(월) ~ 11. 10.(금)	18:00 ~ 21:00	30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1급	24. 1. 8.(월) ~ 1. 26.(금)	13:30 ~ 16:30	30
	컴퓨터활용능력 2급	12. 26.(화) ~ 12. 28.(목)	13:30 ~ 16:30	30
		24. 1. 2.(화) ~ 1. 3.(수)		

[일 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훈련연계형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하여 실무 역량 강화 및 취업가능성 제고

운영 기간	대상	인원
상시	4학년(졸업예정자), 미취업 졸업생, 지역청년	제한 없음

[채용 설명회 및 박람회]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직자멘토링, 취업특강 및 현장면접 등 취업매칭 활동 활성화

행사명	일정	장소
잡콕! 전라북도 일자리 페스티벌	9. 21.(목) 13:00 ~ 17:00	전주화산체육관
콘텐츠기업 디지털 일자리 박람회	10. 11.(수) 13:00 ~ 17:00	예술관(JJ아트홀)
JJ 취업 박람회	11. 1.(수) 13:00 ~ 17:00	하림미션홀

☀️ 안내사항 프로그램 수강 전 꼭 확인 바랍니다!

- 신청방법** Step 1. onSTAR 비교과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Step 2. 첨부 된 약약서 작성하여 메일로 첨부 제출 또는 방문 신청

- ※ 프로그램 일정 대략 2주전부터 onSTAR에서 신청 가능
- ※ 프로그램에 따라 예치금 발생할 수 있으며 개별 공지 사항 확인 필수
- ※ 교육취소: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가능(주말 제외)

- 참가혜택** 핵심역량점수 난이도에 따른 비율 점수, 취업교과목 시험 대체 or 가산점 점수 대체,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취업역량 향상

- 기타사항** 위 전체 과정은 수강신청 인원이 과정별 최대 모집 인원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음

- ※ 학사 일정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문의: 063-220-2129, 2165, 4651~4656, 4722~4724